

## 甲骨文 祭祀卜辭 속 '伐'자 품사 구별 기준 연구

류동춘\*

### 목 차

1. 서론
2. 기존연구의 검토
  - 2.1 갑골문 사전류에 보이는 '伐'자에 대한 풀이
  - 2.2 '伐'자의 품사에 대한 기존 연구
3. '伐'의 명사 용법
  - 3.1 명사 용법 문례
  - 3.2 명사 용법 '伐'의 분포와 특징
4. '伐'의 동사 용법
  - 4.1 동사 용법 문례
  - 4.2 동사 용법 '伐'의 분포와 특징
5. 결론

### 국문초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어 연구 자료인 갑골문은 고대 언어 연구의 보고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갑골문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담보하려면 복사의 정확한 해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복사의 해독에 있어서 자형의 판독과 더불어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품사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甲骨文合集』을 비롯한 총 9종 갑골문 관련 저록의 6만여 편의 갑골문을 수록한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를 연구 범위로 삼아 '伐'이 출현하는 복사를 모두 추출하고, '정별하다'는 의미를 가진 '伐'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복사 속의 '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추출한 대상 자료 속 '伐'은 문례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명사로 사용되었는지 동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사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정하였다. 문례를 분석할 때는 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정복사와 선정복사를 비교하고, 아울러 같은 갑골편의 복사와 문례가 유사한 복사 등을 활용하여 함께 비교하였으며, 품사별로 결합하는 제사동사를 분류하여 어떠한 분포적 특징이 보이는지를 밝혔다.

키워드: 품사분류, 명사, 동사, 제사복사, 대정(對貞) 선정(選貞)

## 1. 서론



갑골문 伐

‘伐’은 갑골문에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그림에 보이듯 從人從戈를 기본 구조로 창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자르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처음으로 갑골문 속 ‘伐’자를 풀이한 사람은 吳其昌이다. 그는 아래의 『殷虛書契前編』1,18,4의 풀이에서 ‘伐’을 ‘(사람을) 죽이다’는 의미의 동사로 보았다.

- (1) 丁丑卜, 貞: 王賓武丁伐十人, 卯三牢, 鬯[尙, 亡尤]<sup>1)</sup>.  
 庚辰卜, 貞: 王賓祖庚伐二人, 卯二牢, 鬯[尙, 亡尤].  
 □□卜, 貞: 王[賓]康祖丁伐□人, 卯二牢, 鬯二尙, 亡尤.  
 丁酉卜, 貞: 王賓文武丁伐三十人, 卯六牢, 鬯六尙, 亡尤. <35355><sup>2)</sup>

위 네 개의 卜辭(복사)는 모두 한 갑골편에 출현하는데, 吳其昌(1932: 25-28)은 ‘伐三十人’과 ‘卯六牢’가 동일한 복사에 나타나므로 ‘伐-人’과 ‘卯-牢’를 서로 대조해 보면, ‘人’과 ‘牢’가 같은 위치에 나오고, 모두 희생물을 나

1) [ ]은 앞과 뒤 복사의 문례에 따라 추정된 문구이다. 이하 같음.

2) < >속의 숫자는 『갑골문합집』의 수록번호이다. 다른 책에서 인용한 경우, <屯751>처럼 서명 약호를 머리에 넣었다.

타내므로 '伐'도 '卯'와 그 의미가 같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였다. 그리고 '卯'가 '殺'의 의미이므로 '伐'도 이와 같은 의미의 동사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거론한 것 이외의 많은 복사들에는 '伐'을 '죽이다'는 의미로 풀이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들이 보인다.

다음 복사를 보자.

- (2) 貞：出<sup>3)</sup>于黃尹十伐、十牛. <916正>
- (3) 出于[黃尹]五伐、[五]牛. <916反>
- (4) 乙亥卜：來甲申又大甲十牢、十伐. <屯940>
- (5) 貞：出于大甲伐十出[又]五/ 翌甲寅出伐于大甲/ 貞：于下乙出伐./ 朋出伐. <902正+ 12218>
- (6) 五伐五<sup>宰</sup>./ 五伐十<sup>宰</sup>. <925>

이 복사들에서 '伐'을 吳其昌의 풀이대로 '죽이다'는 의미의 동사로 풀이하면 복사의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다. '十伐', '十牛', '十牢', '十<sup>宰</sup>' 등은 모두 앞에 수사가 수식하는 구조로 뒤에 나오는 '伐', '牛', '牢', '<sup>宰</sup>'를 같은 성분인 명사로 보아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갑골문에서는 소위 겸류사(兼類詞)라고 하여 하나의 단어가 후대의 여러 단어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예가 많으므로 '伐'이 동사와 명사를 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sup>4)</sup> 그리고 (2)와 (3)을 보면, 희생물의 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選貞卜辭(선정복사)<sup>5)</sup>의 형식으로 점복하는 내용이 명확하다. 이 복사들로 유추해 보면, (6)의 두 복사도 다른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희생물의 수량만을 선정복사의 형식으로 점복하는 것

3) 연구자에 따라 '出'와 '又', '侑', '有'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는데, 본고에서는 피인용 연구자의 원문에 따라 표기한다.

4) 동사와 명사를 겸하는 겸류사의 예로 左와 禽이 있다.  
 동사: ...未卜, 穀貞: 祖乙弗左王. <1624> 명사: 丁酉貞: 王作三師右中左. <33006>  
 동사: 壬申卜, 穀貞: 甫擒麋, 丙子陷, 允擒二百又九. <10349> 명사: 甲辰貞, 執以禽用于父丁卯牛. <32025>

5) 선정복사는 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일일이 제시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점복을 가리킨다.

으로 볼 수 있다. (5)에서는 같은 卍제사의 희생물로 ‘명사+ 수사’의 구조인 ‘伐十出[又]五’이 등장하는데, 갑골문에서 일반적으로 수량 표현으로 ‘수사+ 명사’와 ‘명사+ 수사’ 구조는 같이 사용된다.<sup>6)</sup>

사실 ‘伐’은 동사일 때 제사 의미가 없는 복사들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복사들에서 ‘伐’은 ‘정벌하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었다.

(7) 登婦好三千, 登旅萬呼伐羌. <39902>

부호에게서 삼천 명을 소집하고, 부대 만명을 소집하여 강족을 정벌하게 한다.

(8) 勿呼伐邛. <6269>

공족을 정벌하게 하지 않는다.

(9) 甲辰, 爭貞: 我伐馬方, 帝受我又. 一月. <6664正>

갑진일에 쟁이 묻는다: 우리가 마방을 정벌한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일월이다.

위에서 살펴본 복사들을 통해 ‘伐’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伐’은 ‘머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지내는 제사’<sup>7)</sup>를 나타내거나 ‘머리가 잘린 인간 희생물’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느 대상을 정벌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품사로 보면, 명사와 동사로 모두 사용되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머리를 자르다’는 뜻과 ‘어느 대상을 정벌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명사로는 ‘머리를 자르다’는 동작의 결과로서 생긴 ‘머리가 잘린 사람’이란 의미로 쓰인다. 이 가운데 ‘정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경우는 복사가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별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복사에서는 ‘伐’의 목적어로 종족 명칭이나 방국 명칭이 출현하고, 또 복사의 앞부분에 ‘呼’나 ‘比’ 등이 출현하여 사역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일반적인 祭祀卜辭<sup>9)</sup> 속에서의 ‘伐’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구별

6) 백은희. 류동춘, 박정구(2012:211-230)참조.

7) 다른 들과 구분하여 用牲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런 종류 동사로 ‘歲’와 ‘卯’를 같이 거론한다.

8) 정벌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일 경우 대개 ‘呼(令)/比…+伐+方國’의 구조를 갖는다. 乙巳卜, 爭貞: 乎多臣伐吾方, 受出又. 五[月]. / 貞: 乎多臣伐吾方./貞: 乎多臣伐吾方./貞: 夷王往

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의 복사를 보자.

- (10) 甲戌, 王: 大丁伐./ 戊寅卜, 王: 大庚伐. <953><sup>10)</sup>
- (11) 翌甲寅出伐于大甲./ 貞: 于下乙出伐. 一/ 勿出伐. 二 <902正 + 12218>
- (12) 己亥卜, 貞: 出升伐自上甲. <320>
- (13) 己未貞: 夷甲子酒伐自上甲./ 己未貞: 于乙丑酒伐. <32023+ 33693>

위의 복사들에서 '伐'은 동사인지 명사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10)의 '大丁伐'은 大丁에게 '伐'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과 大丁에게 '伐'제사를 지내는 것 두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생략이 많아 복사 전체 문장의 정보가 없는 對貞卜辭(대정복사)<sup>11)</sup>나 선정복사에서는 품사의 구별이 더욱 어렵다. 위와 같이 복사 속에는 품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사복사에 출현하는 '伐'을 대상으로 삼아 문례 분석을 통하여 동사와 명사로 쓰인 예를 분류하고 '伐'의 품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갑골문이 중국어 연구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복사의 정확한 해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복사의 해독에 있어서 자형의 판독과 더불어 품사의 확정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甲骨文合集』, 『甲骨文合集補編』, 『蘇德美日所藏甲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藏甲骨文字』, 『小屯南地甲骨』, 『英國所藏甲骨集』, 『懷特氏所藏甲骨文集』, 『天理大學附屬參考館甲骨文字』와 『殷墟花園莊東地甲骨』

- 伐吾方. <補編1828>
- 貞: 弓乎伐吾方./ 貞: 乎伐吾方. <6242正+ 6267>
- 辛丑卜, 賓貞: 令多(覲)比望乘伐下危, 受出又. <6524>
- 辛酉卜, 爭貞: 王比望乘伐下危. <6476>

- 9) 복사의 내용이 제사와 관련된 복사를 가리킨다.
- 10) 본고에서 인용한 복사의 번역문은 '伐'의 품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본고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번역문을 생략한다. 이하 같음.
- 11) 두 개의 복사가 긍정과 부정의 형식으로 서로 대구를 이루는 복사이다.

총 9종 저록의 6만여 편의 갑골문을 수록한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우선 ‘伐’이 출현하는 복사를 모두 추출하고, ‘정벌하다’ 의미를 제외하고 ‘伐’이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된 경우와 머리가 잘린 사람 희생물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자료 속의 ‘伐’은 문례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품사를 밝힐 것이며, 짐복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정복사와 선정복사를 비교하고, 아울러 같은 갑골편의 복사와 문례가 유사한 복사 등을 활용하여 함께 비교할 것이다.

## 2. 기존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발견된 자전 중에 가장 오래된 자료인 『說文解字』에 ‘伐’자를 수록하고 있다.

(14) 伐. 擊也. 從人持戈. 一曰敗也.<sup>12)</sup>

伐은 ‘치다’이다. 사람(人)이 창(戈)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일설에는 ‘패퇴시키다.’라 한다.

『설문해자』에서는 ‘伐’의 의미를 ‘치다’로 풀이하고, 자형 구조는 ‘사람(人)이 창(戈)을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서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된 회의자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일설로 ‘패퇴시키다’는 의미를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해자』에는 ‘伐’이 명사로 쓰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설문해자』가 당시에 전해지거나 사용되는 의미만 수록한 것이므로 殷商시기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 갑골문의 ‘伐’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풀이는 어떻게? 우선 갑골문 사전류에 수록한 ‘伐’자의 풀이를 살펴보

12) 『說文解字』卷八 人部.

고, 다음으로 제사복사에 보이는 '伐'자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자.

## 2.1 갑골문 사전류에 보이는 '伐'자에 대한 풀이

徐中舒(1988:893-895)는 '伐'에 대하여 모두 다섯 가지 의미 항목을 제시하였다. 동사로는 '사람 희생물을 사용하는 제사(用人牲之祭)'와 '정벌하다(征伐也)' 두 가지를 제시하였고, 명사로는 '사람 희생물을 세는 단위(用人牲之單位)'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의미 항목도 모두 명사로 '인명(人名)'과 '은나라 조상이름(殷先公名)'인데, 그가 예로 제시한 자형을 보면 모두 일반적인 '伐'의 자형과는 차이가 커서 같은 글자로 보기 어렵다. 徐中舒가 '伐'이 희생물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고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5) 貞: 上甲夷王<sub>口</sub>用五伐十<sub>小</sub>宰. 用. 小告/ 上甲夷二<sub>宰</sub>用/ 貞: 勿二<sub>宰</sub>.  
<924正>
- (16) 貞: 三十伐下乙./ 勿三十下乙./ 貞: 來乙亥酒祖乙十伐<sub>五</sub>, 卯十<sub>宰</sub>.  
<892正>

이 복사를 보면 徐中舒는 '수사+伐'의 구문에 출현하는 '伐'을 단위로 쓰였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徐中舒 이후 朱歧祥, 崔恒昇, 孟世凱 등이 모두 사전에서 '伐'의 동사와 명사 항목을 설정하여 동사는 '정벌하다'의 의미와 '제사 지내다'라는 의미를 모두 수록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하였지만, 명사의 경우는 대부분 상세히 고찰하지 않았다.

朱歧祥(1989:312)은 명사 항목에서 '제사를 가리킨다'고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동사로 쓰였다고 본 것이고, 崔恒昇(1992:129)은 명사 항목에서 徐中舒가 단위로 풀이한 것을 '희생물'로 풀이하였지만, 그 예로는 '수사+伐' 형식만 수록하였다. 孟世凱(2009:248)는 '사람 희생물'과 '정벌에서 죽인 사람'을 명

사의 풀이 항목으로 두었지만, 예문을 보면 동사 용법과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落合淳思(2016:329)는 ‘伐’의 의미를 군사 공격의 뜻인 ‘공격하다’와 ‘제사 명칭’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제사 명칭’으로 쓰일 때는 자형 속에 사람이 포함되어 사람 희생물인 경우 희생의 종류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설명으로 보아, 落合淳思는 ‘제사 명칭’이 명사인지 동사인지 명확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2.2 ‘伐’자의 품사에 대한 기존 연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갑골문 속의 ‘伐’을 처음으로 풀이한 吳其昌은 ‘伐’을 모두 동사로 보았다. 吳其昌 이전에는 이 글자에 대하여 羅振玉의 『增訂殷虛書契考釋』<sup>13)</sup>과 董作賓의 「獲白麟解」<sup>14)</sup>등에서 모두 『禮記樂記』의 ‘夾振之而四伐’, 『山海經海外西經』의 ‘夫樂之野, 夏后氏於此舞九伐’등에 근거하여 ‘伐’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武祭라고 보았다. 吳其昌 이후 학자들은 대부분 ‘伐’을 ‘사람의 머리를 잘라 바치는’ 제사로 보았다.<sup>15)</sup>

‘伐’자가 출현하는 복사의 문맥과 출현하는 희생물, 그리고 ‘伐’자의 자형 구조를 보면 武祭보다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 바치는 제사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의미가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후 陳夢家도 다음 복사를 예로 제시하고, 이 복사 속의 ‘伐’을 동사라고 하였다.

(17) 甲辰貞：又伐于上甲九羌，卯牛。 <32083><sup>16)</sup>

13) 羅振玉(1927:卷下12)

14) 董作賓(1930:593-594)

15) 于省吾(1996: 2335-2344) 참조.

陳夢家(1956:281)는 위의 복사는 제사 대상인 '上甲'에게 又 제사를 지내는 데, '卯'와 '伐'이 모두 '殺'의 의미를 지닌 '用牲法(용생법)'<sup>17)</sup>이라고 보았다. 그의 근거는 『爾雅釋詁』의 '劉, 殺也'와 『廣雅釋詁』의 '伐, 殺也'인데, '卯'를 '劉'의 초문(初文)으로 본 것이다. 즉 陳夢家は 吳其昌과 달리 '伐'과 '卯'를 '용생법'으로 보고 '又'와 구별하였지만 그 품사는 여전히 동사로 보았다.

동사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동사 판정의 방법은 모두 동일한 복사 속의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吳其昌은 '王賓+ 조상신+ 伐+ 수사+ 人'과 '卯+ 수사+ 人'의 구조를 대비시켜 같은 위치에 나오는 '伐'을 '卯'와 같은 동사로 본 것이며, 陳夢家は '又伐于上甲九羌, 卯牛' 속에서 '伐+(于)조상+ 수사+ 羌'과 '卯+ 牛'를 대비시켜 '伐'을 동사로 보았다.<sup>18)</sup>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복사에서는 '伐'이 '牢', '齒'와 같은 명사와 대비적 위치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수사+ 伐'이나 '伐+ 수사' 등의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복사 속 많은 수의 '伐'이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기한 학자는 沈培이다. 沈培(1992:110)는 '제사동사+ 희생물(祭牲)+(于)+ 조상신(神名)'<sup>19)</sup>구조 뒤에 수사, 명사 또는 수명(數名)<sup>20)</sup>구조가 오는 경우, 이 성분들은 제사의 희생물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구조에서 희생물과 이 수사, 명사, 혹은 수명 구조는 분리된 동격 관계라고 하였다. 이 구조에서 동사는 대부분이 '出'이며, 희생물은 '伐', '服', '奚' 등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다.

16) 陳夢家は 제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갑골편에 다음의 복사가 보인다. '甲辰貞: 來甲寅又伐上甲羌五, 卯牛一.'

17) 제사복사에서 목적으로 牢나 牛, 羊 등의 희생물을 가지는 卯, 歲 등의 동사를 일반적 祭祀動詞와 구분하여 用牲法이라 부르기도 한다.

18) 같은 책에서 陳夢家は <22606>의 王賓伐+人과 王賓+ 조상+ 升伐+ 羌+ 수사+ 卯+ 牢를 대비시켜 '伐'과 '升伐'을 모두 동사로 보았다.

19) 엄격한 의미로 보면, 神名은 조상신과 자연신을 포괄하는데, 자연신은 극히 일부라서 본 고에서는 편의상 조상신으로 표기하였다. 이하 같음.

20) '수사+ 명사'구조를 가리킨다.

(18) 來甲午出伐上甲八./ 來甲午出伐上甲十. <904正>

(19) 壬午卜, 殷貞: 出伐上甲十又五, 卯十小宰./ 出伐于上甲十又五, 卯十小宰又五. <901>

沈培는 여기에서 ‘伐’을 모두 희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로 본 것이다. (18)과 (19) 모두 희생물의 수량을 점복하는 선정복사이므로, (18)에서는 점복 내용이 ‘伐’의 수량이 八인지 十인지이다. 그러므로 제사 대상인 조상신 上甲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지만, ‘伐’이 각각 ‘八’, ‘十’과 짝을 이루는 ‘伐+수사’ 구조이며 ‘伐’이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에서도 점복의 대상은 ‘小宰’의 수가 ‘十’인지 ‘十五’인지이다. ‘十又五’는 ‘伐’의 수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다음 복사의 ‘伐’도 명사라고 하였다.

(20) 甲子貞: 又伐于上甲羌一, 大乙羌一, 大甲羌一. 茲用. <32113>

(21) 甲辰貞: 又伐于上甲九羌, 卯牛… <32083><sup>21)</sup>

沈培(1992:110-112)는 (20)과 (21)에서 ‘羌一’이나 ‘九羌’의 ‘羌’은 모두 ‘伐’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숫자는 그 수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20)의 ‘伐+羌+수사’나 (21)의 ‘伐+수사+羌’구조 속 ‘伐’이 명사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伐’과 같은 위치에 희생물로 등장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로 ‘奚’, ‘羌’, ‘服’을 거론했다.

(22) 庚午卜, 虫奚大乙卅. <19773>

(23) …卜, 其又羌妣庚三人. <26924>

(24) 戊辰卜, 又服妣己一女, 妣庚一女… <32176>

沈培는 (22)~(23)에서 ‘奚’, ‘羌’, ‘服’이 모두 사람 희생물이고, 이를 설명해주는 동격으로 卅, ‘三人’, ‘一女’가 뒤에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즉 (20)과

21) 沈培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같은 판에 ‘甲辰貞: 來甲寅又伐上甲羌五, 卯牛一.’이 보인다. 이 복사와 비교해보면, ‘수사+羌’과 ‘羌+수사’가 같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의 '伐+ 兂+ 수사'와 '伐+ 수사+ 兂'을 (22)의 '奚+ 수사', (23)의 '兂+ 수사+ 人', (24)의 '服+ 수사+ 女'들과 같은 구조로 본 것이다. (22)~(23)에서 '奚卅', '兂三人', '服一女'는 沈培의 설명대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卅', '三人', '一女'가 앞의 '奚', '兂', '服'의 구체적 수량을 나타내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伐九兂'은 표면적으로는 '兂三人', '服一女'와 같은 구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왜냐하면 갑골문에서 '人'이나 '女'는 이미 어느 정도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거의 양사화되었기 때문에 앞의 '兂'이나 '服'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지만, '兂'은 양사화된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伐'은 이미 머리가 잘려서 생명이 없는 희생물이므로 당시의 관념으로 '人'이나 '兂'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의 뒤에 자주 출현하는 '卯/歲+ 수사+ 牢/牛'와 비교해 보더라도, '伐'을 '卯'나 '歲'와 같은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2)</sup> 따라서 '伐+ 兂+ 수사'나 '伐+ 수사+ 兂'구조 속의 '伐'은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沈培가 '伐'의 명사 용법을 제시한 이후로 복사 속 '伐'의 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현재 학자들은 대부분 '伐'이 명사와 동사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張玉金(2001:12)은 '伐'은 문자의 구조로 보면 원래 동사인데, 후에 머리가 잘린 사람 희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겸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伐'이 주로 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였다. 그가 '伐'이 명사로 쓰인 예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25) 貞: 禦于父乙, 卅<sup>23)</sup>三牛、卅三十伐、三十牢. <886>

張玉金은 (25)의 '三十伐'과 '三十牢'은 모두 '卅'의 병렬 목적어이며 수사 '三十'의 수식을 받는 명사로 보았다.

22) '卯'와 '歲'의 경우에는 '伐'처럼 앞이나 뒤에 수사가 오는 예가 보이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다.

23) 이 글자는 학자들이 모두 동사로 보지만, 사람에 따라 '鬯'이나 '血'로 예정한다. 본고에서는 이하에서 '血'로 표기한다.

그럼 검류사설을 기반으로 하여 ‘伐’의 품사를 논의한 대표적 연구자 賈燕子(2003), 鄭繼娥(2004), 劉海琴(2006) 3인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은 이전의 단순한 문장 비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사와의 결합 관계를 고찰하였고, 화동갑골문 등 새로 발굴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伐’의 품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든 연구자들이 ‘伐’의 품사에 대하여 동의하는 부분은 ‘伐’이 수사와 결합한 구조에서는 명사라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동사 없이 ‘伐’만 나오거나 ‘伐’의 뒤에 ‘羌’이나 ‘人’이 출현하는 경우라든지, 다른 동사와 함께 출현할 경우의 품사에 대하여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鄭繼娥, 賈燕子, 劉海琴의 ‘伐’의 품사에 대한 견해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우선 ‘伐’과 ‘羌’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鄭繼娥(2004:102)는 ‘伐’이 수량사 없이 다른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다음의 복사를 예로 제시하였다.

(26) 己巳卜, 行貞: 翌庚午其侑<sup>24</sup>伐于妣庚羌三十, 其卯三牢. <22605>

(27) 庚寅卜: 辛卯又伐于父丁羌三十, 卯五牢. <32055>

그는 (26)의 동사 ‘侑<sup>24</sup>’와 (27)의 동사 ‘又’가 각각 ‘伐’과 함께 쓰여 제사 대상 목적어와 희생물 목적어(구체적으로 말하면 ‘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伐’이 동사의 의미가 약간은 있지만 여전히 명사라고 하였다. 이 설명으로 볼 때, 鄭繼娥는 沈培와 같이 ‘伐+羌+수사’구조 속의 ‘伐’을 ‘수사+伐’과 ‘伐+수사’ 구조 속의 ‘伐’과 같은 명사로 본 것이다. 그렇지만 鄭繼娥(2004:101)는 다음의 王賓卜辭(왕빈복사)<sup>25</sup>에서 ‘伐+수사+人’과 ‘伐+羌+수사’ 속 ‘伐’은 동사라고 하였다.

24) 일반적으로 ‘升’으로 예정하는 글자인데, 鄭繼娥는 모두 ‘勺’으로 예정하고 있다.

25) 卜辭 가운데 한 무리는 늘 命辭가 ‘王賓’으로 시작하고 뒤에 제사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卜辭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28) 丙申卜, 行貞: 王賓伐十人, 亡尤. 在滄卜. <22606>  
 (29) 丁卯卜, 旅貞: 王賓小丁歲眾父丁勺伐羌五. <22560>  
 (30) 辛巳卜, 行貞: 王賓小辛勺伐羌二, 卯二宰, 亡尤. <23106>

鄭繼娥는 왕빈복사 속의 '賓'이 '친히 신령을 영접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므로, (28)에서 목적어 '人'을 가질 수 있는 제사동사는 '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9)에서는 '勺伐'이 함께 나와 희생물 목적어를 가지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는 희생물이 대부분 '羌'으로, 앞의 복사처럼 '伐'이 단독으로 올 때 '人'을 가지는 것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30)에서는 '勺伐'이 '羌二'를 목적어로 가지는 구조와 '卯'가 '二宰'를 목적어로 가지는 구조가 병렬로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鄭繼娥는 위의 세 복사에서 '伐'을 모두 동사로 보았다. 鄭繼娥의 왕빈복사 속 '伐'에 대한 견해는 타당하지만, 같은 구조인 다른 제사 복사의 '伐+ 수사+ 人'이나 '伐+ 羌+ 수사' 속 '伐'은 이와 다르게 '동사의 의미가 약간 있지만 명사'라는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 같은 구조이므로 모두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賈燕子(2003:8)는 수사와 결합한 모든 '伐'과 '侑伐'속의 일부 '伐'만 명사이고, 나머지 제사 복사 속의 '伐'은 모두 동사로 보았다. 그가 동사의 예로 든 복사는 다음과 같다.

- (31) 庚辰卜: 侑勺伐于上甲三羌九小宰<32097>

이 복사에서 동사는 '侑勺伐'이고 제사대상이 '上甲'이며, 희생물 목적어가 '三羌'과 '九小宰'라는 것이다. 즉 賈燕子도 '伐+ 수사+ 羌'의 '伐'을 동사로 본 것이다. 劉海琴(200:224)은 '伐'을 동사로 볼 수 있는 대표적 판별 근거로 '羌과의 결합'을 들었다.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鄭繼娥만 '伐+ 수사+ 羌'의 '伐'을 명사로 본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빈복사의 '伐+ 수사+ 羌' 속 '伐'은 동사로 보았으며, 명사로 본 '伐'도 어느 정도의 동사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미 밝혔듯이 '伐+ 수사+ 羌'의 '伐'은 다른 강력한 반증이 나오

지 않는 한 동사라고 본다.

다음으로 수사와 결합하지도 않고, ‘羌’과의 관련성도 없으며, 다른 동사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현하는 ‘伐’을 보자. 鄭繼娥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伐’을 명사라고 하였고, 劉海琴(2006:78)은 ‘伐’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 뒤에 人이나 羌 등의 사람 희생물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 동사로 쓰이고, 대부분은 명사로 쓰인다고 보았다.<sup>26)</sup> 특히 卜辭에 많이 보이는 ‘于+조상신+伐’과 ‘于+장소+伐’구조 속의 ‘伐’도 모두 명사로 보았다. ‘于+조상신+伐’ 구조의 예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32) 貞: 于唐子伐. <972>  
 (33) 貞: 唐子伐. <973正><sup>27)</sup>  
 (34) 出于唐子伐.<456正>  
 (35) 貞: 出唐伐. <951>  
 (36) 貞: 翌乙亥出于唐三伐三宰. <938正>

劉海琴은 (32)의 ‘于唐子伐’을 (34)의 ‘出于唐子伐’, (35)의 ‘出唐伐’, (36)의 ‘出于唐三伐三宰’과 비교해 보면 ‘伐’이 명사임을 알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이치로 (33)의 ‘伐’도 명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34)~(36)에는 ‘出’라는 동사가 출현하기 때문에 (32), (33)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다. (32)와 (33)에 만약 생략된 동사가 없다면 ‘伐’이 이 복사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于+장소+伐’에 대하여 든 예는 다음과 같다.

- (37) 辛卯卜: 于庭伐./ 丁酉…酒…/ 丁酉卜: 于庭伐./ 于庭伐./ 又禍/ 辛丑  
 貞: 酒大宜于庭./ 于□伐./ □□貞: 酒…/[癸]卯… <屯675>  
 (38) 癸卯貞: 酒大宜于磬盲伐. <32262>

26) 劉海琴(2006:321)은 동사 伐이 동물 희생물을 목적어로 갖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27) 劉海琴(2006:76)의 인용문과는 다르게 뒤가 끊어진 갑골로 『甲骨文合集釋文』에는 ‘貞: 唐子伐…’로 표기하고 있다.

(39) 癸卯宜于義京羌三人. <390正>

劉海琴(2006:76-77, 203-204)은 만약에 (37)의 '于庭伐'만 보면 '庭'이란 장소에서 '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39)의 '羌三人'이 宜제사의 희생물이므로, (38)의 '伐'도 희생물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유추하면 (37)의 '伐'도 희생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37)에서 '辛丑貞: 酒大宜于庭'과 '丁酉卜: 于庭伐'의 前辭가 각각 '干支貞'과 '干支卜'으로 대정(對貞)관계로 볼 수 없으며<sup>28)</sup>, 더구나 (39)도 대표적 骨面 記事刻辭로 (37)의 복사와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 복사를 보자.

(40) 辛卯卜: 于臺伐./ 于磬京伐./ [于]川伐. <33136>

(40)은 선정복사로 어디에서 '伐' 제사를 지낼지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점복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40)에서 '于+장소+伐' 구조의 '伐'은 제사동사로 보아야 한다. 위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다른 동사와 연결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伐'은 명사라고 확정할 수 있는 예는 보이지 않으며 '伐'을 모두 동사로 보면 문맥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伐'에 대한 견해도 연구자마다 다르다. '又伐'의 '伐'에 대하여 鄭繼娥는 명사로, 賈燕子는 대부분 동사로, 劉海琴은 일부만 동사로 본다.

賈燕子(2003:8)는 다음 卜辭를 예로 제시하며 '侑伐' 속의 '伐'은 중의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41) 貞: 自上甲侑伐. <947正>

(42) 辛卯貞: 侑伐于大甲祖乙. <32219>

28) 姚孝遂, 肖丁(1985:239)에서는 卜辭의 배열이 다른데 '于□伐. /辛丑貞: 王酒大宜于庭/又禡./于庭伐./丁酉卜: 于庭伐./... 卯.../貞: .../丁酉...酒.../辛卯卜: 于庭伐.'로 수록하고 있다.

(41)과 (42)에서 ‘伐’을 동사로 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같은 갑골편의 복사와 비교를 통하여 다음의 ‘侑伐’속 ‘伐’만은 명사로 보았다.

(43) 貞：翌乙丑勿首侑伐于唐，二告/ 貞：侑唐伐. <952正>

(44) 翌乙巳侑祖乙牢又牝./ 翌庚子侑伐./ 翌庚子勿侑伐. / 貞：勿侑牝. 夷牝.<6653正>

(45) 庚寅卜：侑伐妣丙./ 乙巳卜：侑服妣丙. <32175>

賈燕子는 (43)은 같은 갑골편에 출현하는 ‘貞：侑唐伐.’과 ‘勿首侑伐于唐’의 비교를 통하여 ‘伐’이 명사라고 하였고<sup>29)</sup>, (44)와 (45)의 ‘伐’은 같은 갑골편의 ‘牝’과 ‘牡’ 그리고 ‘服’과 대비해 보면 명사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鄭繼娥(2004:35)는 卜辭의 끝에 나오는 ‘伐’은 대부분 명사로서 희생물로 쓰였지만 ‘有’<sup>30)</sup>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동사성이 증가하여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예로 든 복사는 다음과 같다.

(46) 辛未卜侑伐十羌十牢.<32072>

(46)은 뒤에 ‘伐’의 목적어로 ‘十羌十牢’가 나오지만, 鄭繼娥는 沈培의 동격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여전히 명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46)에서 ‘又伐’의 ‘伐’은 뒤의 ‘十羌十牢’ 때문에 동사로 봐야 한다. 이 복사 이외에 뒤에 다른 성분이 없는 ‘又伐’의 ‘伐’에 대한 예시는 보이지 않는다. 劉海琴은 ‘又伐’과 ‘有伐’을 구분하였고, ‘有伐’에서 ‘伐’은 모두 명사이지만, ‘又伐’의 ‘伐’은 대부분이 명사로 수사가 생략된 것이라 하였다.<sup>31)</sup>다음은 그가 ‘有伐’의 예로 든 卜辭이다.

29) ‘貞：侑唐伐.’은 <951>에 출현하는 복사로 <952正>과 같은 갑골편이 아니다.

30) 鄭繼娥는 본문에서는 ‘有’로 표기하고, 卜辭에서는 ‘侑’로 예정하였다. 이하 같음.

31) 갑골문에서 ‘又伐’과 ‘有伐’은 서로 호환되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又伐’로 다룬다.

- (47) ①<sup>32</sup>貞：于下乙己出伐. ②勿出伐 ③翌甲寅出伐于大甲. ④貞：出于大甲伐十出五. ⑤出于上甲. ⑥勿于上甲. ⑦貞：出于祖丁. <902正>
- (48) ①乙卯卜, 穀貞：來乙亥酒下乙十伐出五, 卯十<sup>宰</sup>. 二旬出一日乙亥不酒, 雨. 五月. ②勿{<sup>霾</sup>}<sup>33</sup>惟乙亥酒下乙十伐出五, 卯十<sup>宰</sup>. 四……  
③丁未卜, 穀貞：酒升伐十、十<sup>宰</sup>. <903正>

(47)에서 '出伐于大甲'과 '出于大甲伐十出五'이 대정 관계에서 출현하고, '伐'과 '伐十出五'이 동일하게 희생물이므로 '出伐'의 '伐'도 명사라는 것이다. (48)에서 '十伐出五'는 '酒'의 희생물 목적어로 조상신인 '下乙'의 뒤에 위치한 것이므로 '伐'이 명사라는 것이다. (48)에 '丁未卜, 穀貞：酒升伐十、十<sup>宰</sup>'이란 복사도 보이는데, '酒'와 '升'의 희생물 목적어로 '伐十'과 '十<sup>宰</sup>'가 나란히 보이는 것도 '伐'이 명사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又伐'의 '伐'의 품사를 구별할 때, 劉海琴은 다음 복사를 근거로 '某伐'과 '某'가 對貞일 경우에 '伐'은 명사이고, '某伐'과 '伐'이 對貞일 경우에는 '伐'이 동사라고 하였다.

- (49) 其又伐, 王受又又/芻又 <屯3550>  
(50) 芻又/又羌/芻又 <32131>

劉海琴에 따르면 (50)의 '又羌'과 '又'가 對貞인데, 反問에서는 뒤의 '羌'을 생략하고 '又'만 남겼으며, (50)도 '又伐'과 '又'가 對貞이므로 생략된 뒤의 '伐'이 '羌'과 같은 명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복사의 생략형은 점복의 초점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이것을 근거로 품사를 판별할 수는 없다. 다음 복사를 보자.

- (51) 己未卜, 其又歲于雍己. 茲用/芻又 <27172>

32) ①의 표기는 피인용자가 같은 갑골편 속의 복사에 순서를 매긴 번호이다. 피인용자가 순서를 매기지 않은 경우 본고에서는 복사간의 구분은 '/'로 표기한다. 이하 같음.  
33) 현행 한자에서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갑골문은 자형이 가장 유사한 한자를 { }속에 표기하였다. 이하 같음.

(51)에서 ‘又歲’와 ‘又’가 對貞인데, 反問에서 ‘歲’를 생략했으며 ‘歲’는 대표적 제사동사이다. (50)과 (51)을 비교해 보면, ‘羌’과 ‘歲’가 각각 명사와 동사인데 대정복사에서 모두 생략이 되었다. (50)과 (51)의 대정복사에서 생략한 성분을 보면, (49)의 ‘伐’이 명사인지 동사인지는 대정 관계에 근거하여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劉海琴(2006:107)은 ‘又伐+ 수사’의 경우는 ‘伐’이 모두 명사라고 보았는데, 다음의 복사를 예로 들었다.

(52) ①壬午卜: {商}又伐父乙. ②乙酉卜: 又伐自上甲{次}示. ③乙酉卜: 又伐自上甲{次}示. 夷乙巳. ④乙酉卜: 又伐自上甲{次}示. 夷乙未. ⑤乙酉卜: 又伐, 乙巳. ⑥甲午卜: 又久伐, 乙未. ⑦乙未卜: 令長以望人{龜}于{禁}. ⑧戊戌卜: 又十牢. ⑨戊戌卜: 又十牢, 伐五, 大乙. ⑩己亥卜: 又伐五, 大乙. ⑪己亥卜: 又十牢.<sup>34)</sup> ⑫己亥卜: 又十牢. 祖乙. ⑬己亥卜: 先又大乙, 廿牢. ⑭己□□: 先□祖□十□. ⑮己亥卜: 先大甲十大牢. ⑯乙巳卜: 夷刳伐. <屯751>

그는 (52)에서 ⑨의 ‘又十牢, 伐五’의 ‘伐’이 명사인 것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어가 없는 나머지 ‘又伐’의 ‘伐’도 모두 수사 ‘一’이 생략된 명사라고 보았다. ‘伐’이 명사임은 분명하지만, 수사가 생략되었다는 劉海琴의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복사에서 수량이 ‘一’인 것도 많이 보이므로, 명사만 있는 것을 모두 ‘一’이 생략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羌’과 ‘羌一’은 각각 ‘羌’족이란 부류와 ‘羌’족 ‘一人’을 나타내고, 卜辭에 자주 보이는 ‘卯牛’도 소 한 마리를 ‘卯’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물로 소 종류를 사용하여 卯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又伐’의 ‘伐’이 名詞라면, ‘伐’을 희생물로 하여 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又伐’속 ‘伐’이 동사인 예로 劉海琴(2006:83-84)은 ‘又伐’과 ‘伐’이 대정 관계인 다음의 복사를 제시했다.

34) 裘錫圭(1992:148)는 (8)과 (9)를 참고하여 ‘十牢’가 (10)과 (11)에서 공유하는 특수한 重文 생략의 예라고 보아, 각각 己亥卜: 又十牢. 와 己亥卜: 又十牢伐五大乙로 읽었다.

- (53) ①丁卯貞：又歲于大乙. ②丁卯貞：□□又歲于大乙. ③辛未貞：[乙亥]又歲于大乙三牢. ④辛未貞：乙亥[又歲]于大乙五牢. 又伐. ⑤大乙伐十羌. ⑥大乙伐十羌又五. ⑦大乙伐三十羌. ⑧癸又伐. ⑨辛巳貞：犬侯以羌，其用自. <屯2293>

劉海琴에 의하면, 이 복사에서 ①~④는 '又歲'와 희생물 '牢'의 수량을 묻는 점복이고, ⑤~⑦은 '伐'이 '羌'족을 목적으로 가지며 ⑨에 犬侯가 羌족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므로 ⑧의 '又伐'의 대상이 바로 犬侯가 바친 羌족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복사들에도 2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올 때 앞의 동사를 생략하고 둘째 동사와 희생물만 남기는 예가 많으며, ①~④의 '又歲'와 ⑧의 '又伐'이 같은 구조이며, ⑤~⑦에 보이는 '伐+羌'의 구조는 원래 '又伐+羌'인데 첫째 동사 又가 생략된 것이므로 (53)의 '伐'은 모두 동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갑골편의 卜辭들이 모두 연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①~④의 '又歲'와 ⑧의 '又伐' 또한 對貞卜辭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둘이 반드시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더구나 ④의 '又伐'은 卜辭의 마지막에 출현하므로 '五牢又伐'로 희생물을 나타내는 명사로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복사에서 '又伐'의 '伐'을 동사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又伐'의 '伐'이 동사임이 확실하다는 예로 劉海琴은 다음의 卜辭를 들었다.

- (54) 庚子又伐于丁其十羌. <32071>

劉海琴(2006:98)은 (54)에서 여기부사 '其'가 일반적으로 희생물 명사 앞에 위치하므로 여기에서 '伐'은 동사임이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sup>35)</sup> 이 복사에서 '伐'이 동사로 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는 뒤에 희생물인 羌이 출현하기

35) 류동춘(2018:68)에 의하면 갑골문 속에서 '其'는 주로 술어 앞에 출현하며, '미래(未來) 시제'나 '의도(意圖), 추측(推測)정태' 용법과 '추측(推測)' 의미를 나타내므로 '其'는 명사 뿐만 아니라 동사 앞에도 올 수 있다.

때문이다. 따라서 뒤에 ‘羌’과 같은 목적어가 없는 ‘又伐’에서 ‘伐’이 동사인 예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酒伐’의 ‘伐’에 대하여 賈燕子는 ‘翌乙酉乎子商酒伐于父乙<969>’에서 ‘伐’이 동사라고 하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劉海琴(2006:321)은 ‘酒伐’ 속의 ‘伐’은 일반적으로 명사라고 하였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다음의 卜辭이다.

(55) 夷伐. 酒于祖乙. <190正>

(55)에서 ‘酒’의 희생물 목적어인 ‘伐’이 전치되었으므로 劉海琴의 견해대로 명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劉海琴(2006:166-168)은 날씨와 관련된 다음 복사에서 ‘伐’은 동사로 쓰였다고 하였다.

(56) 丙申卜, 殷貞: 來乙巳酒下乙. 王占曰: 酒. 惟也崇. 其也鑿. 乙巳酒, 明雨; 伐, 既雨; 咸伐, 亦雨; {斲}卯, 鳥星. <11497正>

하지만 이 복사는 ‘酒伐’이 연속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따로 나오는 것으로, 酒 제사를 거행하자 비가 왔고, 伐 제사를 지내고, 伐 제사를 끝내도 비가 그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酒 제사와 伐 제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酒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제사 복사에서 ‘酒伐’의 ‘伐’은 모두 명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升伐’의 ‘伐’을 鄭繼娥는 명사로 보았지만, 劉海琴(2006:131-132)은 주로 동사로 쓰이고 드물게 명사로도 쓰인다고 하며, 명사의 예로 다음 복사를 들었다.

(57) 夷久伐先酒, 茲用./ 久伐, 夷今日甲酒./ 于乙卯酒久伐./ 夷丁巳酒久伐./ 于來乙丑酒久伐./ 久伐, 其卯羊...又一. <32252>

그는 (57)의 ‘夷久伐先酒’와 <15291>의 ‘...夷久先酒’를 비교하여 (57)에서

추가된 '伐'을 희생물로 본 것이다. 劉海琴은 '酒久'비교하여 '酒久伐'의 뒤에 추가된 '伐'이 왜 명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초점 표지인 '夷'는 갑골문에서 초점화하려는 모든 성분에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久'와 '伐'의 품사와는 아무런 제약 관계가 없으므로 '伐'을 명사로 볼 수 있다. 다만 (57)의 '久伐, 其卯羊...又一'에서는 '其' 뒤에 '卯'와 희생물인 '羊'이 이미 출현하기 때문에 '久伐'의 '伐'이 반드시 희생물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갑골편에서 '酒久伐'과 '久伐'은 대정복사에 출현한 것이 아니다. '酒久伐'은 제사 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選貞卜辭로 점복하고, '久伐'은 이와 다르게 구체적인 희생물인 '羊'을 얼마나 '卯'할 것인가에 대한 점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복사에서 '夷久伐先酒'의 伐은 '酒久伐'속의 '伐'로 보아야 하고, '久伐, 其卯羊...又一'의 '伐'은 '酒久伐'과는 다른 '久伐'의 '伐'로 보아야 한다. 이로 볼 때, 수사가 부가되거나 다른 명확한 명사로 쓰인 표지가 없는 '升伐'의 '伐' 가운데 확실히 명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酒升伐'의 '伐'에 대하여 鄭繼娥는 명사로, 賈燕子는 동사로, 劉海琴은 명사와 동사가 각각 절반이라고 보는 등 견해 차이가 크다. 鄭繼娥는 <903正>의 '酒升伐十, 十宰'을 예로 들어 '伐'이 명사라고 하였는데, '伐+수사'의 구조 때문에 '伐'이 명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賈燕子는 '于來乙丑酒勺伐 <32225>'에서 '伐'을 동사로 보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劉海琴은 이 구조에서 '伐'은 명사와 동사로 다 쓰인다고 하였다. 劉海琴(2006:154-155)이 동사의 예로 든 것은 다음 卜辭이다.

(58) 庚寅貞：酒久伐自上甲六示三羌三牛，六示二羌二牛，小示一羌、一牛.<32099>

(58)은 鄭繼娥가 예로 든 것과 같은 구조로 '酒久伐'은 뒤에 목적어로 '羌'과 '牛'가 출현하기 때문에 '伐'이 동사임이 분명하다.<sup>36)</sup> 그러므로 뒤에 목적

36) 이 卜辭는 동사 '伐'의 목적어가 반드시 사람 희생물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가 없는 상황에서의 ‘酒升伐’의 ‘伐’의 품사가 동사라는 증거는 아니다. 앞의 ‘久伐’에서도 언급했듯이 劉海琴은 <15291>의 ‘…夷久先酒’의 예와 비교하여 ‘夷久伐先酒’의 ‘伐’은 ‘久’ 뒤에 희생물을 추가한 것이므로 명사라고 보았다.

‘又升伐’의 ‘伐’에 대하여 鄭繼娥는 명사로, 賈燕子는 동사로 보고 있는데, 劉海琴은 <32047>등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명사로 본다. 즉 劉海琴(2006:152)은 다른 희생물이나 다른 동사가 같은 갑골편에 쓰이지 않으면 ‘伐’이 名詞라고 하였다.

다음은 ‘又久伐’인데, 劉海琴은 앞의 (52)를 예로 들어, 이 복사에서 ⑨의 ‘又十牢, 伐五’에 근거하여 ‘又伐’의 ‘伐’을 명사로 본 것과 같이, ‘又久伐’도 같은 갑골편에 나오므로 ‘又久伐’의 ‘伐’도 명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왕에 ‘伐’이 명사와 동사로 다 자유로이 쓰일 수 있다면 같은 갑골편에서도 당연히 두 가지 용법이 다 사용될 수 있으므로 ‘又伐’과 ‘又升伐’의 ‘伐’을 모두 ⑨의 ‘伐五’속 ‘伐’과 같이 명사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sup>37)</sup> 더구나 (52)를 보면 대부분 복사는 점복일자가 己亥일과 乙酉일, 戊戌일 등으로 중복되고 對貞이나 選貞의 형식으로 점복한 조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⑥의 ‘甲午卜: 又久伐, 乙未.’와 연계할 수 있는 복사는 ⑦의 ‘乙未卜: 命長以望人(龜)于(禁).’뿐으로 나머지 다른 복사들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52)의 모든 卜辭들이 동일한 주제로 점복이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단 한 차례 출현하는 ‘又升伐’의 ‘伐’을 반드시 다른 복사들의 ‘伐’과 같게 볼 근거는 없다. 또한 劉海琴(2006:308)은 ‘又升伐’의 伐이 동사인 증거로 다음의 복사를 예로 들었다.

(59) 甲申貞: 又久伐于小乙羌五, 卯牢. <屯595>

(60) 其又久大乙羌五十人. <26908>

그는 (59)와 (60)을 비교하여 ‘又久伐’은 ‘又久+ 조상신+ 羌’처럼 ‘又久+ 조

37) 같은 갑골편 내에서도 점복의 내용이나 시기가 전혀 다른 복사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같은 갑골편의 복사를 증거로 사용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상신+伐'의 형식이 보이지 않아 '조상신은 제사동사와 희생물 사이에 올 수 있지만, 祭祀動詞 무리와 祭祀動詞 사이에는 오지 않는다'는 규칙<sup>38)</sup>에 위배되므로 '又久伐'의 '伐'을 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又久伐'의 뒤에 희생물로 '羌'이 나오면 동사라고 劉海琴(2006:147-148)은 다음의 예를 들었다.

(61) ①己丑卜: 在小宗又升歲自大乙. ②□亥卜: [在]大宗又升伐三羌. 十小宰自上甲. <34047>

(61)은 ②에서 '伐'의 뒤에 희생물로 '三羌'과 '十小宰'가 나올 뿐만 아니라, 대정 관계인 ①의 '又升歲'와 대비되는 위치에 '又升伐'이 있으므로 뒤에 희생물이 없더라도 '伐'은 '歲'와 마찬가지로 동사일 수밖에 없다.

위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52)속 '又久伐'의 '伐'이 명사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사복사에서 '又久伐'의 '伐'은 모두 동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酒宜伐'이 출현하는 卜辭이다.<sup>39)</sup>

(62) 癸亥卜: 蕀酒宜伐于大乙. <32216>

(63) 丁未卜: 酒宜伐百羌…官… <41303>

(62)의 '酒宜伐'속 '伐'의 품사를 밝히기 위해 劉海琴(2006:205-206)은 다음의 (64), (65)와 비교하였다.

(64) 己亥貞: 庚子酒宜于臺羌三十、十宰<32051>

(65) 辛酉貞: 酒宜羌. <32124>

38) 劉海琴이 祭祀動詞 무리를 연구하면서 얻은 규칙이다.

39) 劉海琴이 '宜伐'의 예로 든 복사는 '于+장소+伐'의 구조로 '다른 동사 없이 나오는 伐'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64)와 (65) 두 卜辭와의 비교를 통해서 ‘酒宜伐’의 ‘伐’을 ‘酒宜+羌’의 ‘羌’과 같은 희생물로 보았다. 그러나 (63)의 끊어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는 다음의 복사를 보자.

(66) 丁未卜：酒宜伐百羌于官{京}. <英2466>

(66)은 ‘酒宜+羌’과 다르게 ‘酒宜伐+수사+羌’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伐’은 당연히 동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로 볼 때, 卜辭에 동사의 결합으로 ‘酒宜’와 ‘酒宜伐’이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卯伐’의 예이다.

(67) 丁丑貞：其卯伐/ 弼卯伐./ 于祖乙用羌. <32122>

(68) 卯伐./ 于祖乙用羌. <屯887>

劉海琴(2006:214-215)는 (67)과 (68)에서 ‘卯伐’과 같은 갑골편에 있는 卜辭의 ‘于祖乙用羌’에 ‘羌’이 출현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卜辭 속 ‘卯伐’의 ‘伐’은 ‘羌족의 머리를 자른 희생물’로 명사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머리를 자른 ‘伐’을 다시 ‘卯’한다는 것도 卜辭에 보이는 제사 형식에 맞지 않고, 설사 같은 갑골편에 있는 이 卜辭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羌족이 희생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伐제사를 지내는 데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같은 갑골편의 ‘羌’이 ‘伐’이 명사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음의 卜辭를 보자.

(69) 壬寅貞：伐卯夷羊. <32066>

(70) 庚子貞：伐卯于大示五牢, 下示三牢. <屯1115>

(71) 戊卜：夷一[牢], 卯伐妣庚, 子禦. <花東75>

(69)와 (70)에는 모두 동사로 ‘伐卯’가 있고 희생물로는 각각 羊과 牢가 출현한다. (71)에는 ‘卯伐’이 출현하고 희생물로 宰가 전치되었다. 그러므로 (71)의 ‘卯伐’의 伐도 ‘伐卯’의 ‘伐’이 동사인 것과 같이 동사로 보아야 하며,

(67)과 (68)의 '伐'도 동사로 보아야 한다. '卯'와 '伐'이 모두 동사이기 때문에 서로 순서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와 본고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伐'의 품사에 대한 기존 견해 비교

구문	沈培	鄭繼娥	賈燕子	劉海琴	본고
伐數羌/伐羌數	명사	명사	동사	동사	동사
又伐		명사	동사/소수명사	명사/일부동사	명사
酒伐			동사	명사/일부동사	명사
升伐		명사		동사/일부명사	동사
酒升伐		명사	동사	동사/명사	동사
又升伐		명사	동사	명사/일부동사	동사
伐		명사		명사	동사
酒宜伐				명사	동사
卯伐				명사	동사

### 3. '伐'의 명사 용법

본고는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에서 '伐'자가 출현하는 1637개를 추출 하였고, 이 가운데 정벌복사 743개와 갑골편의 단절이나 탁본의 문제로 내용 구분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총 451개의 제사복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은 이 가운데 명사로 쓰인 '伐'의 문례이다.

### 3.1 명사 용법 문례

#### 3.1.1 [伐+수사]

##### 1) 동사가 없는 경우

戊午父己伐一. <27003>

- ‘干支+ 조상신+ 伐+ 수사’의 구조로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

##### 2)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壬寅卜, {尋}又祖辛伐一, 卯一牢. <32221>

- ‘인명(또는 제사동사)+ 제사동사+ 조상신+ 伐+ 수사+ 제사동사+ 수사+ 牢’의 구조로 동사‘又’의 희생물로 ‘伐’이, 동사 ‘卯’의 희생물로 ‘牢’가 출현한다.

乙卯卜, 丙: 冊大庚七十宰, 伐二十. <895丙>

- ‘제사동사+ 조상신+ 수사+ 宰+ 伐+ 수사’의 구조로 동사 ‘冊’의 목적어로 ‘宰’와 ‘伐’이 병렬로 출현한다.

이밖에 단독으로 출현하는 동사로 ‘用’, ‘血’, ‘以’<sup>40)</sup>, ‘禦’, ‘升’이 있다.

##### 3)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丁未卜, 設貞: 酒升伐十、十宰. <903正>

- ‘제사동사+ 제사동사+ 伐+ 수사+ 수사+ 宰’의 구조로 동사 ‘酒’와 ‘升’의 희생물로 ‘伐’과 ‘宰’가 출현한다.

위와 같이 두 개의 동사가 출현하는 것으로 ‘又酒’, ‘酒禦’, ‘酒血’이 있다.

丙子卜: 酒升歲伐十五、十牢、物大丁. <屯4318>

40) ‘以’는 ‘바치다’는 의미로 제사동사는 아니지만,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므로 본고에서 다루었다.

- '제사동사+ 제사동사+ 제사동사+ 伐+ 수사+ 수사+ 牢+ 物+ 조상신'의 구조로 3개의 동사 '酒', '升', '歲'의 희생물로 '伐', '牢', '物'이 출현한다.<sup>41)</sup>

### 3.1.2 [수사+伐]

#### 1) 동사가 없는 경우

五伐五宰./ 五伐十宰. <925>

- '수사+ 伐+ 수사+ 宰'구조의 대정복사로 희생물인 '伐'과 '宰'의 수량을 점복하는 내용인데, 희생물을 제외한 복사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생략하였다.

#### 2)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出于唐三伐, 三宰. <938正>

- '제사동사+ 于+ 조상신+ 수사+ 伐+ 수사+ 宰'의 구조로 동사 '又'의 목적어로 '伐'과 '宰'가 병렬로 출현한다.

出祖辛三伐./ 十伐. <905反>

- '제사동사+ 조상신+ 수사+ 伐'구조의 선정복사로 희생물의 수량을 점복한다. 뒤의 복사에서는 동사와 조상신이 생략되었고 희생물만 출현한다.

貞: 來乙亥酒祖乙十伐又五, 卯十宰. <892正>

- '제사일시+ 제사동사+ 조상신+ 수사+ 伐+ 제사동사+ 수사+ 宰'의 구조로 동사 '酒'의 희생물로 '伐'이, 동사 '卯'의 희생물로 '宰'가 출현한다.

冊祖丁十伐, 十宰./ 勿冊祖丁. <914正>

- '제사동사+ 조상신+ 수사+ 伐+ 수사+ 宰'구조의 대정복사로 동사 '冊'의 희생물로 '伐'과 '宰'가 병렬로 출현한다. 반문에서는 희생물이 생략되었다.

41) 이 분석은 CHANT DB에 근거하여 物을 희생물로 보았는데, <屯2308>의 '丁酉卜: □來乙巳酒升歲伐十五, 十物牢' 복사로 보면 物이 牢를 뒤에서 수식하는 성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이 밖에 동사로 ‘用’, ‘禦’, ‘延’ 등이 쓰였다.

### 3)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癸亥卜: 又上甲酒伐五牛, 乙丑. <32080>

- ‘제사동사+ 조상신+ 제사동사+ 伐+ 수사+ 牛’의 구조로 제사동사 ‘又’와 ‘酒’의 희생물로 ‘伐’과 ‘牛’가 출현한다. 이 복사에서 수사 ‘五’는 ‘伐’과 ‘牛’에 모두 관계되는 것이다.

#### 3.1.3 수사가 없는 경우

##### 1)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 ① 又伐

庚寅[卜]: 弔[又]伐./ 庚寅卜: 又伐妣丙./ 乙巳卜: 又服妣丙./ ……服.  
<32175>

- ‘제사동사+ 伐+ 조상신’구조가 ‘제사동사+ 服+ 조상신’구조와 같은 갑골편에 출현하는데, ‘伐’이 노예를 나타내는 ‘服’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貞: 燎東西南, 卯黃牛./ 燎于東西南出伐, 卯黃牛. 小告. <14315正>

- ‘제사동사+ 于+ 방위신+ 제사동사+ 伐+ 제사동사+ 黃牛’의 구조로 앞의 복사와 비교해 보면, ‘又伐’의 ‘伐’은 ‘黃牛’와 같은 희생물로 보아야 한다.

夷丙又父丁伐./ 丙午卜, 貞: 丁未又父丁伐. (屯923)

- ‘제사일시+ 제사동사+ 조상신+ 伐’구조의 선정복사로 제사 날짜를 점복하는 내용이다. 이 복사에서 ‘伐’은 희생물을 나타내며, 수량 표시가 없으므로 희생물의 종류만 나타낸다.

###### ② 酒伐

夷伐. 酒于祖乙. <190正>

- '夷+伐+ 제사동사+ 于+ 조상신'의 구조로 동사 '酒'의 희생물을 초점표지 '夷'를 사용하여 동사의 앞에 놓았다.  
于乙酉酒伐./ 于丁亥酒伐./ 壬午卜…伐夷甲申酒./ 歲于南庚. 茲用.  
<32242>
- '于+ 제사일시+ 祭祀動詞+ 伐'구조의 제사일시를 점복하는 선정복사이다. 같은 갑골편의 '伐夷甲申酒'를 보면, 동사 '酒'의 앞으로 '伐'이 이동하였으므로 '伐'이 희생물임을 알 수 있다.

## 2)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 ① 酒升伐

翌甲戌酒升伐. <811反>

- '제사일시+ 제사동사+ 제사동사+ 伐'의 구조인데, 같은 갑골편에 '貞: 于生七月勿出酒五伐'이 있는 것으로 보아 '伐'이 희생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劓又伐

于大示劓又伐. <32215+ 34124>

- '于+ 조상신+ 제사동사+ 제사동사+ 伐'의 구조인데, '劓伐'과 '又伐'의 '伐'이 모두 명사인 것으로 보아, '劓又伐'의 '伐'도 명사로 추정할 수 있다.

## 3.2 명사 용법 '伐'의 분포와 특징

본고는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에서 추출한 '伐'자 포함 갑골문을 총 1637개 가운데 정벌복사와 확인이 불가능한 갑골문을 제외하고 제사복사로 총 451개를 선정하였다. 이어 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가운데 283개가 명사로 전체의 분석대상의 63%가량을 차지한다. 다음 표는 명사 '伐'을 수사와 함께 쓰였는지 여부 및 함께 쓰인 동사에 따라 분류하여 출현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2〉 수사 유무에 따른 명사 '伐'의 결합 동사별 분포

數詞의 有無		동사와의 결합	구문	횟수
數詞	伐+數詞	無	伐數	3
		단일동사	又伐數	20
			冊伐數	4
			酒伐數	2
			以伐數	1
			血伐數	1
			用伐數,	1
			禦伐數	1
			升伐數	1
		복수동사	酒升伐數	2
			又酒伐數	2
			酒血伐數	1
			酒禦-伐數	1
	酒升歲伐數		3	
	數詞+伐	無	數伐	30
		단일동사	又數伐	34
			酒數伐	8
			禦數伐	4
			冊數伐	4
用數伐			2	
延數伐			1	
복수동사		又酒數伐	1	
無數詞	단일동사	又伐	93	
		酒伐	47	
	복수동사	酒升伐	11	
		刳又伐	4	
		又升歲伐	1	

위의 표를 보면, 명사로 분류한 '伐'은 수사와 함께 쓰인 것이 모두 127개 이고, 수사와 함께 쓰이지 않은 것이 156개이다. 수사와 함께 쓰인 127개 가운데 수사가 뒤에 오는 것이 43개, 수사가 앞에 오는 것이 84개로 1:2의 비율이다. 이 가운데 동사 '又'의 목적어로 '伐'이 출현하는 '又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구조는 수사가 '伐'의 뒤에 오는 것이 20개, 수사가 앞에 오는 것이 34개로 총 53개이다.

수사와 함께 쓰이지 않은 명사 '伐'도 동사 '又'의 목적어로 출현한 것이 93개로 가장 많고, 동사 '酒'의 목적어로 출현한 것은 47개이며, 2개의 동사 조합의 경우 '酒升'의 목적어는 11개, '又又'의 목적어는 4개 출현한다. 3개의 동사 조합인 '又升歲'의 목적어로는 1개가 보인다.

다음은 동사별로 목적어인 명사 '伐'과 결합하는 수량 통계이다.

〈표3〉 명사 '伐'과 결합하는 동사별 분포

	伐+ 수사	수사+ 伐	無수사	합계
無動詞	3	30		33
又	20	34	93	147
酒	2	8	47	57
冊	4	4		8
禦	1	4		5
用	1	2		3
血	1			1
以	1			1
升	1			1
延		1		1
酒升	2		11	13
又又			4	4
又酒	2	1		3
酒禦	1			1
酒血	1			1
酒升歲	3			3
又升歲			1	1
합계	43	84	156	283

위의 표를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사가 없는 경우 ‘伐’은 반드시 수사와 함께 쓰인다. 다음으로 동사와의 분포를 보면, 출현 빈도가 높은 동사 ‘又’, ‘酒’, ‘又酒’와 ‘伐’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수사가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동사 ‘刳又’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수사가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동사와의 결합 관계를 보면, 대부분 수사와 함께 쓰인다.

## 4. ‘伐’의 동사 용법

다음은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에서 추출하여 선정한 451개 제사 복사 속에 보이는 동사 용법 ‘伐’의 문례이다.

### 4.1 동사 용법 문례

#### 4.1.1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

아래는 목적어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 1) 數詞가 없는 경우

乙亥卜, 貞: 伐羌. <519>

‘伐+羌’의 구조로 같은 갑골편의 ‘得四羌’으로 보아, 포로로 잡은 ‘羌’으로 ‘伐’제사를 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2) [數詞+羌]

###### ①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

大乙伐十羌./ 大乙伐十羌又五. <合補10441>

- '조상신+伐+ 수사+ 羌'의 구조로 희생물 '羌'의 수량을 짐복하는 선정복사이다. 여기에서 '伐'은 동사이다.

**②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甲辰貞：又伐于上甲九羌，卯牛。 <32083>

- '제사동사+伐+于+ 조상신+ 수사+ 羌+ 제사동사+卯'의 구조로 제사동사 '又', '伐'의 목적어로 '羌'이, 제사동사 '卯'의 목적어로 '牛'가 출현한다.

**③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己巳貞：王來乙亥又升伐于祖乙，其十羌又五。/ 其卅羌。 <屯611>

- '주어+ 제사일시+ 제사동사+ 제사동사+伐+于+ 조상신+其+ 수사+ 羌'의 구조로 동사 '又', '升', '伐'의 목적어로 '羌'이 출현하는데, 희생물 수량이 짐복의 대상이므로 희생물 앞에 강조하는 부사 '其'를 넣었다. 이어지는 선정복사에서는 복사의 앞부분을 생략하고 희생물만 나타냈다.

**3) [羌+數詞]**

**①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

伐于父丁羌三十卯三牢又二牛。 <32109>

- '伐+于+ 조상신+ 羌+ 수사+ 제사동사+ 수사+ 牢+ 又+ 수사+ 牛'의 구조로 동사 '伐'의 목적어는 '羌'이고, 동사 '卯'의 목적어는 '牢'와 '牛'이다.

**②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甲寅：上甲升伐羌十。 五月 <41457>

- '조상신+ 제사동사+伐+ 羌+ 수사'의 구조로 동사 '升'과 '伐'의 목적어로 '羌'이 출현한다.

甲辰貞：來甲寅又伐上甲羌五，卯牛一。/ 甲辰貞：又伐于上甲九羌，卯牛。 <32083>

- '제사일시+ 제사동사+伐+ 조상신+ 羌+ 수사+ 제사동사+ 牛+ 수사'구조와 '제사

동사+伐+于+조상신+수사+羌+제사동사+牛'의 구조로 동사 '又'와 '伐'이 목적어 '羌'을, 동사 '卯'가 목적어 '牛'를 가진다. 이 복사는 희생물의 수량을 점복하는 선정복사인데, '수사+羌'과 '羌+수사'가 복사에 모두 출현하여 두 구조가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 ③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甲午貞: 酒升伐乙未于大乙羌五, 歲五牢./ 丙申貞: 酒升伐大丁羌五, 歲五  
□. <屯739>

- '제사동사+제사동사+伐+제사일시+于+조상신+羌+수사+제사동사+수사+牢'의 구조로 제사 대상인 조상신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점복하는 선정복사이다. 이 복사에서 동사 '酒', '升', '伐'은 목적어로 '羌'을, 동사 '歲'는 목적어로 '牢'를 가진다.

### 4) [數詞+人]

癸亥卜, 貞: 亼伐于丁十人. <合補183>

- '제사동사+伐+于+조상신+수사+人'의 구조로 동사 '又'와 '伐'이 조상신을 사이에 두고 '十人'의 희생물을 목적어로 가지는 복사이다. '伐+수사+人'은 '伐+수사'와는 다른 구조로 갑골문에서는 '人'이 '羌'이나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인 적은 있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伐'의 단위로 쓰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사에서 '伐一人'과 '伐一'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의 복사를 보자.

(72) 丙子卜: 祖丁莫(魴)羌五人. 吉. <屯1005>

(73) …上甲伐三人, 王受有祐.. <26997>

(72)와 (73)에서 '羌五人'과 '伐三人'이 같은 구조로 보여 '羌'과 '伐'이 모두 희생물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五人'과 '三人'이 그 수량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伐三人'의 '伐'은 동사이다. (72)에는 '羌五人'이란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로 {無}이 있지만, (73)은 앞부분이 끊어진 복사로 다음의 복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74) 丁酉卜, 貞: 王賓文武丁, 伐三十人, 卯六牢, 鬯六亩, 亡尤. <35355>

(74)에도 '伐+수사+人'의 구조가 보이는데, '賓'은 희생물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가 아니므로 희생물 목적어 '三十人'을 가질 수 있는 것은 '伐'이 될 수밖에 없다. (73)의 뒤에 보이는 '王受有祐'도 왕빈복사에 많이 보이는 문구로 이 복사가 일반적 제사복사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준다.

庚申: 御{翎}眾癸子, 冊伐一人, 卯宰. <花226>

- '제사동사+원인목적어+제사동사+伐+수사+人'의 구조로 동사 '冊'과 '伐'의 목적어로 '一人'이 출현한다. 鄭繼娥가 언급한 <懷56>의 '冊羌一人'과는 다른 구조이며, 이 복사에서 伐은 동사이다.

#### 4.1.2 목적어가 없는 경우

##### 1) 다른 동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 경우

甲戌卜, 王: 大丁伐./ 戊寅卜, 王: 大庚伐. <953>

- '조상신+伐'의 구조로 어느 조상신에게 '伐'제사를 지낼지를 점복하는 복사이므로 '伐'은 동사이다.

辛卯卜: 于臺伐./ 于磬京伐./ [于]林伐. <33136>

- '于+장소+伐'의 구조로 '伐'제사를 지낼 장소를 점복하는 선정복사이다.

##### 2) 단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 ① 升伐

升伐, 其卯羊...又一. <32252>

- ‘제사동사+伐+其+ 제사동사+羊’의 구조로 ‘伐’은 동사로 쓰였으며 ‘升’과 ‘伐’ 제사를 지낼 때, 함께 거행하는 ‘卯’제사의 희생물 수량을 점복하는 내용이다.

## ② 卯伐, 伐卯

戊卜：夷一[牢]，卯伐妣庚，子禦. <花75>

- ‘夷+ 수사+宰+ 제사동사+伐+ 조상신’의 구조로 동사 ‘卯’와 ‘伐’의 목적어인 宰에 夷를 부가하여 앞으로 옮겼다. ‘卯伐’은 대개 짐승이 목적어로 오며, ‘伐卯’로도 쓰기도 한다.

庚子貞：伐卯于大示五牢，下示三牢. <屯1115>

- ‘伐+ 제사동사+于+ 조상신+ 수사+ 牢’의 구조로 동사 ‘伐’과 ‘卯’의 목적어로 ‘牢’가 출현한다.

## 3)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 ① 又升伐

癸巳貞：其又升伐于伊，其即日./ 其又升歲于伊. <32103>

- ‘其+ 제사동사+ 제사동사+伐+于+ 조상신’의 구조로 뒤의 복사와 비교해 볼 때, ‘歲’와 같은 위치에 ‘伐’이 나오므로 ‘伐’을 ‘歲’와 같이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又升伐’이 출현하는 복사는 대부분 제사대상을 점복하는 내용으로 품사를 판별할 다른 표지가 없는데, 이 복사만 같은 갑골편의 복사와 비교를 통하여 ‘伐’이 동사임을 알 수 있다.

己亥卜，貞：出升伐自<sup>42)</sup>上甲. <320>

- ‘제사동사+ 제사동사+伐+自+ 조상신’의 구조로 위의 복사에 근거해 보면, 조상신에게 ‘又’, ‘升’, ‘伐’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이 복사에서 ‘自’는 ‘于’와 같은 의미의 전치사이다.

② 酒宜伐

癸亥卜：遯酒宜伐于大乙. <32216>

- '동사+ 제사동사+ 제사동사+ 伐+ 조상신'의 구조로 伐이 동사로 쓰였다.<sup>43)</sup>

4.1.3 王賓卜辭

□亥卜，行貞：王賓父丁升伐羌十又八. <22550>

- '王+賓+ 조상신+ 제사동사+ 伐+ 羌+ 수사'의 구조로 '羌'이 동사 '升'과 '伐'의 목적어이다.

丁卯卜，貞：王賓伐，亡尤/ 辛未卜，貞：王賓伐，亡尤. <35373>

- '王+賓+伐'의 구조로 '伐'은 동사이다.

丁酉卜，貞：王賓文武丁，伐三十人，卯六牢，鬯六卣，亡尤. <35355>

- '王+賓+ 조상신+ 伐+ 수사+ 人+ 제사동사+ 수사+ 牢'의 구조로 '伐'과 '卯'가 동사이고 '人'과 '牢'가 목적어이다. '鬯'도 이 복사에서 동사로 쓰여 '卣'를 목적어로 가진다.

乙未卜，貞：王賓武乙升伐，亡尤. <35380>

- '王+賓+ 조상신+ 제사동사+ 伐'의 구조로 '升'과 '伐'이 동사이고 목적어는 보이지 않는다.

4. 2 동사 용법 '伐'의 분포와 특징

다음은 동사 '伐'이 '羌'이나 '人'을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다시 함께 쓰이는 동사별로 나누어 출현 횟수를 나타낸 표이다.

43) 丁未卜：酒宜伐百羌于官(京). <英2466> 참고.

〈표4〉 목적어 유무에 따른 동사 '伐'의 분포

목적어	목적어 종류	수사와 결합	동사와 결합	구문	횟수	
有	羌	無	無	伐羌	5	
				伐數羌	9	
		數詞+ 羌	단일동사	升伐數羌	1	
				又伐數羌	7	
			복수동사	酒升伐數羌	1	
				又升伐數羌	14	
				酒宜伐數羌	1	
			羌+ 數詞	無	伐羌數	4
		升伐羌數			1	
		단일동사		又伐羌數	12	
	복수동사			酒升伐羌數	2	
		又升伐羌數(人)	4			
	人	數詞+ 人	無	伐數人	3	
			단일동사	又伐數人	1	
無		無	無	伐	19	
				단일동사	升伐	2
					卯伐	6
		伐卯	2			
		복수동사	又升伐	21		
			酒宜伐	1		
		王賓卜辭				

위의 표에 보이듯이 제사복사에 출현하는 '伐' 451개 가운데 168개가 동사이며 분석대상 전체의 37%가량 차지한다.

'羌'이나 '人'이 '伐'의 뒤에 목적어로 나오면 '伐'이 동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羌'을 목적어로 가지는 '伐'이 61개이며, 이 가운데 수사가 '羌'의 앞에 출현하는 것이 33개, 수사가 '羌'의 뒤에 나오는 것이 23개이고, 나머지 5개는 수사 없이 바로 '羌'이 출현한다. '人'을 목적어로 가지는 '伐'은 4개인데

모두 수사가 '人'의 앞에 출현한다.

'羌'이나 '人'을 목적어로 가지지 않은 동사 '伐'은 모두 51개이고, 동사 '賓'을 포함한 왕빈복사 속의 '伐'은 모두 동사로 총 52개이다.<sup>44)</sup>

'羌'이나 '人'이 목적어인 동사 '伐'의 경우 '伐'과 함께 쓰이는 동사 가운데 가장 많이 출현한 동사는 '又', '又升'이며 각각 20개, 18개이다. '羌'이나 '人'을 목적어로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又升'이 21개로 가장 많으며, '伐'만 출현한 것이 19개를 차지한다. '羌'이나 '人'을 고려하지 않으면 '伐'과 함께 쓰이는 동사 가운데 '又升'이 총 39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다음 표는 동사 '伐'의 목적어 유형 및 함께 쓰이는 동사에 따라 분류한 통계를 나타낸다.

〈표5〉 동사 '伐'의 목적어 유형 및 함께 쓰이는 동사에 따른 분포

동사 \ 목적어	無	數詞+羌	羌+數詞	羌	數詞+人	합계
伐	19	9	4	5	3	40
又伐		7	12		1	20
卯伐	6					6
升伐	2	1	1			4
伐卯	2					2
又升伐	21	14	4			39
酒升伐		1	2			3
酒宜伐	1	1				2

위의 표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다.

단독으로 출현하는 동사 '伐'이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동사 '又升伐'의 경우도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와 가지지 않는 경우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동사 '又伐'과 '酒升伐'은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보이지 않지만, 동사 '卯伐'과 '伐卯'는 모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44) '王賓卜辭'속의 '伐'은 한두 예를 제외하고, 대개 수사, '人', '羌' 등의 동사임을 알 수 있는 성분이 있지만, '賓'의 성격을 감안하여 세분하지 않고 하나의 부류로 다루었다.

## 5.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복사 속 ‘伐’의 품사를 구분하였고,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는 ‘伐’의 명사 용법을 수사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동사 용법을 목적어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동일한 문형에서 ‘伐’이 명사로 사용되었는지 동사로 사용되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6〉 문형별 ‘伐’의 품사 분포

명/동 기준 문형	명사 용법			동사 용법			합계
	수사 있음	수사 없음	횟수	목적어 있음	목적어 없음	횟수	
伐	33		33	21	19	40	73
又伐	54	93	147	20		20	167
酒伐	10	47	57				57
冊伐	8		8				8
卯伐					6	6	6
禦伐	5		5				5
升伐	1		1	2	2	4	5
用伐	3		3				3
伐卯					2	2	2
血伐	3		1				1
以伐	3		1				1
延伐	1		1				1
又升伐				18	21	39	39
酒升伐	2	11	13	3		3	16
刳又伐		4	4				4
又酒伐	3		3				3
酒宜伐				1	1	2	2
酒禦伐	1		1				1
酒血伐	1		1				1
酒升歲伐	3		3				3
又升歲伐		1	1				1
합계			282			116	398

본고의 연구 결과 '伐'의 품사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사'와 함께 쓰였는지, '목적어'가 있는지이다. 명사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기준은 수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며 동사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기준은 '羌'과 '人' 등의 목적어가 있는 것이다. 본고의 고찰을 통하여 볼 때, 제사복사 속의 '伐'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와 '羌'이나 '人'을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에는 모두 동사로 쓰였고, 수사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명사로 쓰였다. 수사와 함께 쓰이지 않았거나, '羌'이나 '人'을 목적어로 가지지 않은 '伐'이 다른 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 '伐'의 품사는 앞에 출현하는 제사동사와 관련이 있다. '伐'과 함께 쓰이는 제사동사는 '又', '酒', '又升', '酒升'의 순으로 많이 보이는데, 이 제사동사들과 '伐'의 품사 사이에 뚜렷한 경향성이 보인다. 즉 '又', '酒'와 '酒升'은 '伐'을 목적어로 많이 가지고, '又升'은 예외 없이 동사 '伐'과 결합하여 제사동사군을 이룬다. 이러한 경향에 근거해 보면 '酒'는 명사 '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升'은 동사 '伐'과 자주 함께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又升伐'의 '伐'이 모두 동사인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즉 '又'는 동사 '伐', 명사 '伐'과 모두 함께 쓰일 수 있지만, '升'이 동사 '伐'과 함께 쓰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又升'은 동사 '伐'과만 함께 쓰이는 것이다. 반면에 '酒升伐'의 '伐'은 모두 명사로서 목적어이다. 이는 '酒伐'의 '伐'은 항상 명사로 쓰이고, '升伐'의 '伐'은 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동사로 사용된 경우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酒'와 '升'이 함께 쓰이는 경우 뒤에 오는 '伐'은 명사만 공통적인 조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伐'과 제사동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결합 특징은 결국 제사동사가 의미하는 제사 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伐'의 동작이 필요한 제사 의식이 있고, 결과물로서의 '伐'이 필요한 제사 의식도 있어서 제사동사에 따라 결합하는 '伐'의 품사가 다른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더 많은 제사동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고 '伐'의 품사 구별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 參考文獻

- 손예철, 『갑골학 연구』, 서울: (주)박이정, 2017.
- 唐蘭, 『天壤閣甲骨文存並考釋』,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0(1939).
- 羅振玉, 『增訂殷虛書契考釋』, 臺北: 大通書局, 1970(1927).
- 落合淳思, 『甲骨文字辭典』, 京都: 朋友書店, 2016.
-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5.
- 孟世凱, 『갑골학사전』,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9.
- 徐中舒,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8.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北京: 中華書局, 1996.
- 張玉金, 『甲骨文語法學』, 上海: 學林出版社, 2001.
- 朱歧祥, 『殷墟甲骨文字通釋稿』,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北京: 科學出版社, 1956.
- 崔恒昇, 『簡明甲骨文詞典』,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2.
- 沈培, 『殷墟甲骨卜辭語序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2.
- 胡厚宣, 『甲骨文合集釋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 姚孝遂, 肖丁, 『小屯南地甲骨考釋』, 北京: 中華書局, 1985.
- 백은희, 류동춘, 박정구, 「갑골문을 통해서 본 중국어 양사의 출현 기제」, 『중국어언어연구』 제40호,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2.
- 류동춘, 「甲骨文中 보이는 ‘其’의 용법과 어법화 과정」, 『언어와 정보 사회』 제35호, 서강대학교언어정보연구소, 2018
- 裘錫圭, 「再談甲骨文中重文的省略」, 『古文字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2.
- 董作賓, 「獲白麟解」, 『董作賓先生全集』, 臺北: 藝文印書館, 1977(1930).
- 吳其昌, 「殷代人祭考」, 『清華周刊』 第37卷第9-10期, 清華大學清華周刊社, 1932.
- 賈燕子, 「甲骨文祭祀動詞句型研究」, 西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 劉海琴, 「殷墟甲骨祭祀卜辭中伐之詞性考」,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鄭繼娥, 「殷墟甲骨卜辭祭祀動詞的語法結構及其語義結構」, 四川大學博士學位論文, 2004.

漢達古文獻資料庫(CHANT)

<https://www-chant-org.libproxy.gnu.ac.kr/search/Basic>

## Abstract

###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Criteria of the part of speech of '伐' in Shang Oracle bone sacrificial inscriptions

Ryu, Dong Choon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the oldest existing Chinese research material, is a treasure trove of ancient language research. However, in order for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to guarantee its value as a data, accurate decoding of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must precede, and in decoding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it is the most basic to grasp the meaning of the letter and distinguish between parts of speech and reading the shape of the letter. Therefore, in this paper, all sacrificial inscriptions in which "fa(伐)" appears were extracted, and the parts of speech were analyzed by studying the remaining "fa(伐)" except for "fa(伐)" of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related to conquest. The part of the extracted data, "fa(伐)", was divided into those with and without labeling components, and the part of the text was confirmed through the method of literary analysis. When analyzing literary examples,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of *Duizheng*(對貞) and *Xuanzheng*(選貞) were com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and the sacrificial inscriptions of the same Oracle bone inscriptions piece and similar sacrificial inscriptions were used to compare them together, and it was revealed what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were seen by classifying the sacrificial verbs that were combined for each part of speech.

**Key words** : part of speech classification, noun, verb, sacrificial inscriptions, *duizheng*(對貞), *xuanzheng*(選貞)

투 고 일 : 2025. 1. 10. / 심 사 일 : 2025. 1. 15.~ 2025. 2. 15. / 게재확정일 : 2025. 2. 20.